

〈신유복전〉의 창작시기 재론

주수민*

<차례>

1. 서론
2. 여타 이본들의 존재 가능성
3. <신유복전>에 나타난 중국인식
 - 1) 쇠퇴한 존명 의식
 - 2) 이민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신유복전>의 창작시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본 작품의 창작시기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본 작품은 구활자본의 형태로만 현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출판된 광문서시본의 발행연도인 1917년에 창작된 것으로 규정되거나, 명나라를 침범한 오랑캐를 유복이 물리친다는 작중 대결구도를 바탕으로 북벌의식이 강하게 자리했던 병자호란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단되었다. 그러나 본 작품은 현전하는 구활자본 외에도 또 다른 이본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양상은 본 작품의 창작시기를 현전하는 구활자본의 산출시기와 동일시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본 작품에는 약화된 존화 의식과 이민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표출되어 있었는데, 본고는 이러한 중국인식을 중심으로 본 작품이 19세기 중후반 경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신유복전>, 창작시기, 구활자본, 중국인식, 19세기 중후반 창작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1. 서론

<신유복전>은 조선인 신유복의 초분(初分) 고생과 입신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전반부와 중국을 무대로 한 유복의 영웅적 활약상을 그린 후반부로 구성된 ‘중국 원정 영웅소설’¹⁾의 하나로, 10여종의 구활자본 이본들만이 현전하고 있는 작품이다.²⁾

그간 본 작품에 대한 연구는 전반부 서사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설화 수용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피거나,³⁾ 후반부의 중심 서사인 유복의 중국 활약상에 나타난 작자의식을 고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⁴⁾ 그런데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신유복의 중국 활약상에서 한민족의 우

- 1) 조동일은 본 작품을 ‘해의 원정 군담소설’로 명명한 바 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481쪽. 그러나 본고에서는 본 작품의 해의가 중국이라는 점과 작품에 나타난 중국인식을 논의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중국 원정 영웅소설’이라 부르기로 한다.
- 2) 본 작품의 이본으로는 <신유복전>이라는 제명의 구활자본 11종과 <천정연분>이라는 제명의 구활자본 3종이 현전한다고 한다. 엄태웅, 「<신유복전> 이본 <천정연분>의 변이 양상과 의미1」, 『Journal of Korean Culture』 24, 2013, 65쪽.
- 3)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명재와 곽정식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박명재는 집에서 쫓겨난 딸이 잘 살게 된다는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가 본 작품에 수용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곽정식은 본 작품의 서사가 전체적으로 ‘초궁만달 설화’를 모티프로 취하는 가운데, ‘지인지감’과 ‘혼사장에 설화’를 수용하여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박명재, 「신유복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7~38쪽; 곽정식, 「<申遺服傳>의 설화 수용 양상과 영웅소설사적 의의」, 『한국문학논총』 61, 2012, 8~23쪽.
- 4) 그밖에도 임형섭은 <신유복전>과 동일한 서사 구성을 보이는 <이태경전>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엄태웅은 본 작품과 이본 관계에 있는 <천정연분>의 서사를 비교하였다. 더불어 윤보운은 본 작품과 <소대성전>의 고난구조의 비교를 통해 후대의 영웅소설이 당대 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가를 논하기도 했다. 임형섭, 「<신유복전>과 <이태경전>의 비교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46쪽; 엄태웅, 앞의 논문, 61~90쪽; _____, 「<신유복전> 異本 <천정연분>의 변이 양상과 의미2」, 『우리문학연구』 41, 2014, 105~143쪽; 윤보운, 「영웅소설의 고난 구조와 후대적 변이 양상」, 『어문연구』 89, 2016, 97~129쪽.

월성을 표출하고자 했던 작자의 민족의식을 포착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 따라 그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본 작품의 창작시기를 배청의식이 강하게 자리했던 병자호란 이후로 추단한 김기동, 이해숙, 박명재는 본 작품이 ‘북벌’이라는 시대정신을 소설적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성취도를 높이 평가하였다.⁵⁾ 반면, 가장 이른 시기에 출판된 구할자본의 발행시기인 1917년을 본 작품의 창작시기로 본 권순공과 신태수는 작자의 민족의식이 존화출이의식(尊華黜夷意識)에 기반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의 시대정신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본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⁶⁾

이러한 양상은 선행연구들이 서사 내·외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한 각각의 창작시기의 사회상과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본 작품의 작자의식

5) 김기동은 신유복이 명나라를 도와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본 작품의 서사를 병자호란에 대한 복수의 소설적 성공으로 보았으며, 이해숙 역시 본 작품이 병자호란 이후 ‘북벌’이라는 시대정신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가운데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더불어 박명재는 본 작품의 창작시기를 북벌에 대한 논의가 우세하던 ‘효종’ 혹은 ‘숙종’ 때로 비정하는 가운데, 작가가 ‘민족적 긍지와 자주독립의식’, ‘고진감래의 낙관주의’ 그리고 ‘유교적 신의와 공명주의’를 가지고 본 작품을 창작했다고 보았다.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256~258쪽; 이해숙, 『신유복전의 구조와 의미』, 『논문집』 5, 1987, 271~276쪽; 박명재, 『신유복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51~58쪽.

6) 권순공은 1910년도의 실상과 연결하여 본 작품이 애국계몽기의 역사전기 소설과 같이 영웅을 통해 민족적 긍지를 불러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존화출이의식을 이념적 근거로 삼고 있는 까닭에 민족주의를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태수는 유복이 중국에서 대공을 세운 뒤 달라진 것은 조선이 아닌 신유복 개인의 위상뿐이었다는 점을 들어 본 작품이 민족주체성을 빙자하여 개인적 차원의 이상주의를 구현했다고 보았으며, 행여 작자의 의도가 일제강점기라는 암흑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도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신유복과 같은 좋은 시절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을지라도 “작가의식의 불철저”로 민족의 기상을 고취하는데에는 실패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권순공, 『신유복전과 민족주체주의의 한계』, 『성대문학』 27, 1990, 263~265쪽; 신태수, 『신유복전의 作品世界와 理想主義의 性格』, 『한민족어문학』 26, 1994, 181~188쪽.

및 문학적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전하는 구활자본들과 본 작품의 후반부 서사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때, 본 작품의 창작시기를 구활자본의 발행시점과 동일시하거나 병자호란 이후로 비정하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현전하는 구활자본에 앞선 여타 이본들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더불어 후반부 서사에 나타난 작자의 중국인식을 정치하게 살펴봄으로써 본 작품의 창작시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여타 이본들의 존재 가능성

<신유복전>의 창작시기를 1917년으로 본 데에는 무엇보다 본 작품이 구활자본의 형태로만 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본 작품은 현전하는 구활자본 외에도 또 다른 이본들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타 이본들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시기를 주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한다.⁷⁾

첫째, 현전하는 구활자본 가운데 가장 앞선 시기에 발행된 광문서시본은 원작이 아닌 특정 저본(底本)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 본고는 현전하는 이본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대정(大正) 6년(1917)에 광문서시(廣文書市)에서 발행한 <신유복전>을 주요 텍스트로 하는 가운데, 1927년에 경성서적업조합(京城書籍業組合)에서 발행한 <친정연분>을 비교 텍스트로 하여 논의를 진행코자 한다. 광문서시본은 총 76면으로 1~24면은 매면 14행·매행 37자, 25면부터는 매장 12행·매행 37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과 행 사이에는 여백을 두어 필요에 따라 한자를 부기해 놓았다. 또한 <친정연분>은 총 33면으로 매면 17행·매행 34자로 구성되어 있어 서사 분량에서 <신유복전>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광문서시본 <신유복전>은 1917년에 발행된 구활자본으로 이후에 발행된 동일한 제명을 가진 활자본들의 저본이라 할 수 있다.⁸⁾ 그런데 광문서시본의 서사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확인된다.

(가) 최씨 놀나 씨보니 일장춘몽이라. 몽스가 이상하야 셔운하기로 즉시 진스를 청하야 몽스를 엇즈온디 진스 왈, “나의 몽스도 이 갖흐니 참 이상하고 셔운하외다.” 하며 일변 너림에 귀즈나 둘가 옹망하야 흐며 일변 득남홀지라도 아달의 락을 보지 못 홀가 셔운하야 흐나 진스 부인 최씨로 더부러
..... 과연 그달부터 티긔 잇슴뉘 진스 싱각하되...⁹⁾

위의 (가)는 무자한 신영 부처가 꿈을 꾸 뒤 유복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초반부 서사의 일부로, 인용문에는 밑줄과 같이 “.....”이 나타난다. 더불어 문맥상 밑줄 친 부분에는 유복의 잉태 과정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담겨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원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상 일제의 검열에 의한 ‘가림’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¹⁰⁾ 더욱이 당대 고소설 작품들의 활자본 출간은 대개의 경우 필사본과 방각본으로 향유되던 작품

8) 이후 <신유복전>은 조선서관(1925), 회동서관(1927), 성문당서점(1935) 등에서도 활자본으로 발행되었는데, 본 이본들은 한자를 부기하지 않았을 뿐 광문서시본과 서사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신유복전> 4면.

10) 육당문고 소장 고소설 작품들은 활자본으로 간행되기 전 일제의 검열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왕조의 호칭을 ‘대명’에서 ‘명나라’로 바꾼다거나, ‘·’를 ‘卜’로 고치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는 정도의 수정이 가해졌는데, 이와 같이 소폭의 수정만이 가능했던 것은 고소설의 내용이 일제의 검열에 크게 흠 잡힐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관련 내용은 김성철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성철, 『육당문고 소장 조선광문회본 고소설에서 드러나는 초창기 검열 양상과 검열 우회 의 징후』, 『고전과 해석』 16, 2014, 17~21쪽.

들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¹¹⁾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가)의 밑줄 친 부분은 작자 혹은 편자의 특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보다는 독해가 어려운 저본을 바탕으로 활자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¹²⁾

더불어 광문서시본의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나) 독즈시여, 여차흔 동지를 보게 드면 인물 우렬을 가히 알지라. 고진감리며 흥진비리는 턴연공리어나와 동서양을 막논호고 사름이 미양 귀홀스록 육망이 불갓치 이러나서 득노망축호는 마암으로 더욱 극귀호 량으로 불나 뷔 밝은 비슬 탐호야 등잔불에 들겨들고 소경이 평 〃 흠을 취호야 파밭에 드러가드시 한업시 극귀호 디위를 영등뎡랑스럼에 도모호라다가 …<중략>… 네적에 자죽주는 천츨의 보감이 되미 뉘라셔 흠션 칭찬 아니호리 업더라.¹³⁾

위의 (나)는 “작자평”¹⁴⁾이라 불리기도 한 부분으로, 유복의 사적을 관련된 고사(故事)와 함께 거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광문서시본 <신

11) 김성철은 고소설을 활자본으로 출판할 때에는 과거의 서사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독자층의 욕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필사본이나 방각본으로 존재했던 작품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기술하였다. 김성철, 『활자본 소설』 <改過遷善> 南無阿彌陀佛』에 드러난 검열 흔적과 의미, 『한국학연구』 59, 2016, 40~42쪽.

12) 더불어 이러한 양상은 각주8)에서 제시한 후대 활자본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제명이 다른 이본인 <천정연분>에서는 최씨가 북도선관을 현몽한 뒤 “마음에 이상이 역이여 진사를 청하야 몽사를 말삼하고서 것본 빗출 썩여 위로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잇는지라(2면)”라고 서술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13) <신유복전> 73~75면.

14) 신태수(1994), 앞의 논문, 167쪽.

유복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광문서사에서 발행된 <유문성전>, <김희경전>, <장익성전>과 같은 작품들에서도 발견된다.

(다) 이러흠으로 인간 사름이 마음을 어질게 먹고 적션을 만이 흐면 업든 복록이라도 싱기려니와 만일 마음을 악하게 먹고 악흔 일만 흥흐면 권세와 위력이 금일에는 비록 제일이 될지라도 명일에는 하결 은유와 들목의 신세가 될는지 안이 될는지 나는 지정하야 말할 것 업스나 동서양 민족은 빅이사지하야 하느님의 주시는 은혜 빛을 사업만 마니 실행히시기 바라노라. 독즈시여, 명심불망하야 심분 건신희실지어다.¹⁵⁾

(다)는 <신유복전>이 발행된 이듬해인 대정 7년(1918)에 광문서사에서 발행된 <유문성전>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본 작품의 저작자는 <신유복전>과 같이 “鄭基誠”이라 적시되어 있다. 또한 <유문성전>의 논평 부라 할 수 있는 (다)에서는 (나)에서와 같이 “독즈시여”나 “동서양”과 같은 표현들이 발견되는 가운데, 그 내용과 문체에 있어서도 (나)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⁶⁾ 그런데 이러한 <유문성전>의 이본들 가운

15) 광문서시본(1918) <류문성전> 하권, 39면.

16) 더불어 이러한 표현과 내용들은 원작자가 동일하게 ‘정기성’으로 적시된 <김희경전>(1917)과 <장익성전>(1922)에서는 발견되는 반면, 경성서적업조합에서 발행한 <천정연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광문서시본 <신유복전>에 나타난 작자명은 <신유복전>이 아닌 광문서시본 고소설 작품들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두 작품에 나타난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희경전> 119~120면, “고서에 운흐엇스되 착흔 나무에 착흔 열미 열고 악흔 나무에 악흔 열미 열닌다더니 장강 양인을 지목하야 말흔 것 갓도다. 독즈시여 김희경과 장수정의 흥효절외와 여러 동렬의 화목하든 흥적을 열심 효칙홀지어다.”

<장익성전> 65면, “독즈시여, 동양글에 흐얏스되 격덕지기에 필유여경이라 흐얏고 서양글에 흐얏스되 어진 나무에는 어진 열미 열닌다 흐얏스며 악흔 나무에는 악한 열미 열닌다 흐얏거니와 동서양에 남녀로소를 물론하고 장영의 착흔 흥적을 효측하야 실행히면 만덕 영화홀 거시며 표진영의 악흔 흥적을 증계하야 악흔 일은 저근 거

데에는 ‘1890년 경인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이 현전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양상은 <신유복전>에서 작자평으로 알려진 (나)가 기실 작자가 아닌 광문서시본의 편자가 쓴 논평임을 보여주는 것으로,¹⁸⁾ <신유복전> 역시 <유문성전>을 비롯한 여타의 구활자본 고소설 작품들과 같이 이미 존재했던 이본들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신유복전>의 활자본 이본들 가운데 1927년에 경성서적업조합에서 발행한 <천정연분>은 현전하는 <신유복전>이 아닌 또 다른 이본을 저본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⁹⁾ 다음은 이 둘의 서두를 제시한 것이다.

[신유복전] 화설 히동 조선국 명종대왕 시절이라. 전라도 무주 남면 고비촌에 일위 명스 잇스되 성은 신이오 명은 영이니 장렬공 팔세손이요 사디진스 신담의 아달이라.²⁰⁾

시라도 헝치 말지어다. 근신 # # 남녀동포시여.”

- 17) 본 필사본은 <유문성전 권지단>이라는 내제를 가지고 있으며, 필사기를 통해 “경인춘(81면)”에 필사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웹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본 이본의 분류번호는 “조선총독부고서부분류표古朝48”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본 작품의 필사기에 적시된 ‘경인년’이 적어도 195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필사본의 생성 하한연도는 1890년으로 볼 수 있다.
- 18) 신태수는 작자평에 표출된 작자의 세계관 그 이상이 작품의 서사에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작자평과 작품 사이의 거리를 지적한 바 있다. 신태수, 앞의 논문, 167~172쪽. 그러나 작자평을 논자의 평으로 본다면 이러한 작품 내적 모순 역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19) 엄태웅은 <신유복전>의 일부분에 국한된 내용을 수정하고 있을 뿐 작품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천정연분>을 <신유복전>의 ‘개작’이 아닌 ‘이본’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신유복전>이 ‘영웅의 서사’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천정연분>은 ‘남녀의 결연과 가족 서사’를 중시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엄태웅(2013), 앞의 논문(2013), 61~90쪽.

【천정연분】 각설 조선 인조대왕 시절에 전나도 무주 남면 고비촌에 한 사람이 있스니 성은 신이요 명은 영이니 장절공의 후손이요 세세 사환하는 집이라.²¹⁾

위의 인용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 두 작품은 서두에서부터 각각 “명종 대왕 시절”과 “인조대왕 시절”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 <신유복전>의 신영 부처(夫妻)는 제주 한라산에 제단을 건축하고 기자치성을 올린 뒤 한라산 선관을 현몽한 후 유복을 얻게 되나,²²⁾ <천정연분>의 신영 부처는 집의 후원에 칠성단을 쌓고 축원 후 북도선관을 현몽한 뒤 유복을 잉태하게 된다.²³⁾ 또한 <신유복전>에서 유복은 장원급제 후 공석이었던 ‘수원부사’에 제수되나, <천정연분>의 유복은 임금께 자청하여 고향인 ‘남원부사’에 제수되는 등 세부 서사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²⁴⁾

20) <신유복전> 1면.

21) <천정연분> 1면.

22) <신유복전> 3면, “재난 지 여러 날 만에 제주 한라산을 당도호야 수십명 녀정을 사 용호야 불일성지로 제단을 건축하고 진스 부처 목욕지게호야 일심성녀으로 퍽일괴 도를 맞치고 본제로 도라오니라. …<중략>… 그날 밤에 부인이 자연 곤뇌호야 안식에 의지호야 잠간 조호더니 비몽사몽 간에 한라산 선관이 일기 선동을 다리고 와 부인을 디호야…”

23) <천정연분> 1면, “즉시 후원에 칠성단을 모호고 매일 삼시로 축원하니 극진한 정성이 구천에 맞쳐스때 엇지 무심하리요. 일일은 부인이 한 꿈을 어드니 하날로 일위 선관이 구름을 타고 청의동자를 압세우고 방중에 드러와 부인을 청하여 왈, 나는 북도선관 일어니…”

24) <신유복전> 26면; <천정연분> 15면. 그밖에도 <신유복전>에서 경쾌는 유복의 과거 길 노자 마련을 위해 친정에서 쌀을 도적질하다 들켜 매를 맞는데(20~21면), <천정연분>에서는 경쾌가 친정부모에게 돈을 꾸러 갔다가 매를 맞는 것(17면)으로 되어 있으며, 유복이 중원에서 만난 동자가 부르는 노래의 내용 역시 이본 간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신유복전> 8~9면; <천정연분> 4~5면.

게다가 두 작품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결말을 보이고 있다.

【신유복전】 잇씩의 공의 년광이 칠십세에 이르러 기력이 쇠진함익 상소를 닥가 벼살을 사직하고 무주 고비촌 고향에 검의환향으로 내려가더라. … <중략>… 흐늘노셔 일위 선관이 내려와 신공을 향햏야 왓, “ …<중략>… 옥황상제 띄옵셔 나를 명햏사 그딤 부부를 다려오라 햏시기로 내려왔스오 니 인간자리를 싱곡지 마시고 밧비 가사이다.” 햏겨늘 공과 부인이 여러 자녀를 도라다 보며 자녀들을 디햏야 한 마디씩 일너주니라. 잇씩 맞춤 텃디 진동햏고 칩운이 이러나며 옥져 소릭 다시 나는 듯 햏더니 공과 부인이 간 데 업겨늘 비로소 여러 자녀들이며 남녀노소드리 상공이 빅일승턴 햏 줄을 알고 잇통햏며…²⁵⁾

【천정연분】 상세 연광이 칠십이라. 벼살을 하죽햏고 전주 고비촌에 내려와 집을 짓고 농업을 힘쓰미 갈건야복으로 세월을 보내니 전일 고싱햏든 일과 출전햏할 재를 생각하니 일장춘몽일너라. 상셔 부뷔 햏년 팔십에 세상을 이별하니 자녀들이 애통햏며 선산에 안장햏고 가도를 직히니 자손이 창성햏야 세 〃 로 복녹을 누리더라.²⁶⁾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신유복전>은 본래 천상계의 존재였던 유복 부처가 승천햏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반면 <천정연분>은 유복과 경쾌가 햏년 팔십에 고향에 내려와 세월을 보내다 기세햏는 것으로 종결된다.

더욱이 두 작품은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고유명사나 특정 기간을 기술 함에 있어 일관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25) <신유복전> 73~76면.

26) <천정연분> 32~33면.

〈표1〉 〈신유복전〉과 〈천정연분〉의 표현 비교

내용 \ 제명	〈신유복전〉	〈천정연분〉
유복 잉태 기간	십 사 삭(5면)	십 삭(2면)
유복의 고향	무주(25면 외)	진주(14면 외)
유복의 스승 이름	원강대사(17면 외)	원감대사(9면 외)
유복의 수학 기간	8년(18면 외)	6년(10면 외)
유복의 동서들의 이름	류소현/김평(18면)	유현/김형(10면)

이러한 양상은 <천정연분>이 현전하는 활자본인 <신유복전>이 아닌 또 다른 이본을 저본으로 하여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²⁷⁾

마지막으로, 필사본이 유통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북한에서 출판된 『고전소설 해제2』에 실린 <신유복전>에 대한 내용과 여중동 교수가 『배달말교육』에 남긴 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신유복전》은 청춘남녀간의 진실한 사랑을 기본주제로 하고 이에 군담을 결부시킨 애정 군담소설이다. 작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창작년대는 작품에 반영된 내용과 문체상특성으로 보아 임진, 병자 전쟁이후 시기로 추정된다. ㉠해방 전까지 민간에서 수사본으로 많이 읽혀오던 작품이며 현전하는 책으로서는 계몽시기에 출판된 인쇄본(60여페이지)이 전할뿐이다.²⁸⁾

27) 16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한 <현수문전> 이본 연구에 따르면, 서사 단락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이본들을 A계열과 B계열로 분류하였을 때, 각각의 계열에 속하는 이본들은 서사 단락 뿐 아니라 고유명사나 특정 기간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수민, 「<현수문전> 이본 연구」, 『정신문화연구』 134, 2014, 235~238쪽. 이에 비추어 보건대, <신유복전>과 <천정연분>이 서사적 차이와 더불어 고유명사나 특정 기간을 기술함에 있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천정연분>이 광문서시본 <신유복전>의 서사나 표현을 변개한 것이기 보다는 또 다른 이본을 저본으로 하여 생성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한다.

28) 조선문화창작사 고전문학실, 『고전소설 해제2』, 문예출판사, 1991, 218쪽 인용. 덧붙

소자의 선비(先妣) 겨우서 평소 <신유복전>을 읽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위하여 <신유복전>을 읽으시는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붓글씨 책에 눈물이 흘러서 책이 상하게 되었습니다.²⁹⁾

㉠에 따르면 본 작품은 해방 전까지 필사본의 형태로도 활발하게 유통되었으며, 여중동 교수의 모친은 ㉠과 같이 본 작품을 필사본으로 접했다. 이러한 기록들은 비록 <신유복전>의 필사본이 현전하는 구활자본에 앞서 유통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으나, 적어도 현전하는 구활자본이 아닌 또 다른 이본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작품의 창작시기를 논함에 있어 일정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³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17년에 발행된 <신유복전>은 원작이 아닌 선행한 특정 이본을 저본으로 하여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구활자본 <천정연분>은 현전하는 <신유복전>과는 다른 저본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비록 현전하지는 않지만 본 작품이 구활자본이 아닌 필사본으로 유통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기록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무엇보다 현전하는 구활자본의 존재가 본 작품의 창작 하한시기를 규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그 창작시기

어 문예출판사본에 실린 <신유복전>은 1928년 영창서관에서 발행된 활자본을 텍스트로 하고 있으며, 편자인 박현균은 본 작품이 양란 후 멸청복명론(滅淸復明論)이 강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효종의 서거로 북벌계획이 중단되자 이를 소설적인 세계에 서나마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책, 256쪽.

29) 여중동, 『자료 <신유복전>』, 『배달말 교육』 17-1, 1997, 145쪽 인용.

30) 물론 당대 유통되었던 필사본이 활자본을 저본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필사본이 존재했던 정황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개의 활자본 고소설과 같이 광문서시본 역시 원작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지 구활자본만이 현전한다는 이유에서 본 작품의 창작시기를 구활자본의 발행시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 전하는 구할자본에 기대어 <신유복전>의 창작시기를 1917년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작자의식과 시대정신의 괴리를 말하기보다는,³¹⁾ 창작시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 작품에 나타난 작자의식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신유복전>에 나타난 중국인식

<신유복전>의 후반부는 유복이 중원에 들어가 명나라를 침범한 서번·가달·몽골 연합군을 물리치고 중원을 구하는 활약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작중 대립구도는 선행연구에서 본 작품의 창작시기를 북벌의식이 강하게 자리했던 ‘병자호란 이후’로 비정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런데 후반부 서사에 나타나는 조·명 관계와 이민족의 형상은 병자호란 이후의 북벌의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본 작품에 나타난 중국인식을 중심으로 본 작품의 창작시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쇠퇴한 존명의식

다음은 <신유복전>의 후반부 서사가 시작되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각설 잇썩는 명나라 무종 황제 직위 삼년 일식 조정에 충신이 업고 간신
이 병권하야 텨자의 총명을 가리여 란일이 상다하니 엇지 국가 텨평하리요
잇썩 맞참 서번과 가달이 강성하야 몽고로 더부러 화친하야 세 나라이 동심

31) 각주6) 참고.

협력하야 군사를 이르켜 중원을 칠시 셔쥬 칠십여 성을 쳐 항복받고 셔평관에 이르니 관 직히는 장수 능히 저당치 못 하야 장계를 닥거 급히 올너거늘...³²⁾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무종(正德帝, 재위 1505~1521) 치세의 명나라는 조정에는 간신이 득세하고 외침마저 끊이지 않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다음과 같이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치세의 조선은 백성들이 격양가를 부르는 태평성세로 그려진다.³³⁾

잇썩 조선국은 년년풍동하야 빅성이 격양가를 부르고 쥬가에서는 티평가를 부르니 이러므로 관민이 다 티평성디라 일컫는지라. 잇썩 왕상의 읍셔 만심환희하사 문무빅관을 거나리시고 여민락풍류로 밋일 연락하시는 시디라.³⁴⁾

그러나 무종과 인조는 동시대를 산 인물이 아니다. 더불어 무종은 유교적 질서와 도덕을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영종(正統帝, 재위 1457~1464) 이후 감소한 군사력을 회복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³⁵⁾ 반면,

32) <신유복전> 46~47면.

33) 서사 초반 <신유복전>의 서사적 배경은 “화설 히동 조선국 명종대왕 시절이라. <신유복전> 1면”에 나타나듯 명종(明宗, 재위 1545~1567) 대로 나타난다. 한편, “인조 디왕의 읍셔 세조를 탄싱하시고 티평경과를 비설하야... <신유복전> 19면”에서 알 수 있듯 이후의 서사는 인조 대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명종 조에 태어난 유복이 14세에 이삼의 셋째 딸 경패와 혼인 후 8년을 원강대사 밑에서 수학한 뒤 태평과에 장원급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인조 재위기에 신유복이 활동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여기서의 인조는 본래 선조(宣祖, 재위 1567~1608)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본다.

34) <신유복전> 49~50면.

주지하듯 인조 치세의 조선은 병자호란이라는 일대 국란을 겪은 시기로 태평성세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본 작품에 나타난 양국의 상황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허구적 설정은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좌승상 최철이 주왈, “도적이 이리투스 강성호와 싸오나 조정에 지용이 겸비한 장수 업고 다 빅면셔싱 갓스오니 가장 망극흔운지라. 신의 소견에는 조선이 비록 소국이오나 명장이 만사오니 폐하는 아모 넘녀 마옵시고 조선으로 사신을 보니여 청병흐옵소서.”³⁶⁾

위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명나라 조정에서 대책을 세우는 장면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명나라 좌승상 최철은 자력으로 전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개탄하는 가운데, 군사 강국인 조선에 원병을 요청할 것을 주청하고 있다.³⁷⁾

35) 《明史》는 무종이 영종 이후 감소한 군사력을 회복시키고 유근을 차단하여 국경의 침입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무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유희를 좋아하고 소인배를 총애하였으며 황제인 본인에게 작위를 내리는 등 유교적 질서와 도덕을 어지럽혔으나, 유능한 신하를 기용하여 황제의 권력과 국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에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도 무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明史》本紀16, 武宗, “贊曰 明自正統以來 國勢浸弱 毅皇手除逆瑾 躬禦邊寇 奮然欲以武功自雄 然耽樂嬉遊 暱近群小 至自署官號 冠履之分蕩然矣 猶幸用人之柄躬自操持 而秉鈞諸臣補苴匡救 是以朝綱紊亂 而不底於危亡 假使承孝宗之遺澤 制節謹度 有中主之操 則國泰而名完 豈至重後人之訾議哉.”

36) <신유복전> 49면.

37) 임진년 4월 13일, 코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를 앞세운 왜군은 부산포를 시작으로 부산성과 동래성을 함락한지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였고 불과 4개월 만에 대동강변과 함경도 회령을 점령하였으며, 이에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은 ‘청병(請兵)’을 주청하기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당시의 조·명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왕상씩읍셔 보시기를 다하시고 만조빅관을 모와 명국에 구원병을 청하는 일에 덕하야 의논하신티 만조정이 묵묵부답하더니 그중 병조판서 신유복이 출반 주왈, “지금 중국이 위턱하야 구원함을 청하얏스오니 ㉠구원을 보너지 아니하면 린국 덕접이 아니옵고 가달이 만일 중국을 멸하오면 조선도 순망지한으로 어려오니 밧비 구원병을 보니어 ㉡중국을 구원하야 주고 조선의 위엄을 쇠오미 조홀가 하나이다.”³⁸⁾

이후 명나라는 원병 요청을 위해 조선에 사신을 보내는데,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조선의 국왕과 대신들은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명나라를 돕고자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복은 ㉠과 같이 ‘인국의 도리’와 양국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에 있음을 들어 원군 파병을 주청한다. 그런데 언뜻 존명의식 혹은 대명의리의식에 입각한 주장으로 들리는 신유복의 말에서는 몇 가지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 유복은 분명 명나라를 ‘상국(上國)’이 아닌 ‘인국(隣國)’이라 부르고 있으며, ‘의리(義理)’가 아닌 ‘실리(實利)’에서 파병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조선후기 사대부들에게 명나라는 역사 속에서나 존재하는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베푼 조선의 유일한 상국으로 인식되었다. 더불어 유복이 언급한 순망치한은 보통 강대국이 약소국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거론되는 논리로,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石星, 1538~1599)이 조선에 원군 파병을 주청할 때 나온 말이기도 하다.³⁹⁾ 게다가 유복은 ㉡에서와 같이 조선이 명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유보전, 『壬辰倭亂期 朝·明 關係史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40쪽. 따라서 작중 명나라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외적의 침입을 받아 타국에 원병을 요청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를 보인다.

38) <신유복전> 50면.

39) 《춘추좌씨전》에 수록된 우리나라 궁지기의 고사에서 비롯된 ‘순망치한’은 흔히 강대

나라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존명의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음에서 인용한 조선 국왕에게 보낸 명나라 천자의 자문에서는 ㉔,㉕과 같이 중화의 천자가 번국의 왕에게 보낸 내용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발견된다.

잇세 마참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청병자문을 올니거늘 직시 기탁하야 보시니 그 글에 ㅎ얏스되, ‘명국황제는 조선국왕에게 두어자 글을 ㉔올니나 니 지금 셔변과 가달이 강성하야 몽고로 더부러 동심합력하야 셔쥬 칠십여 성을 치고 셔평관에 이르렀스니 그 형세 턱산갓하야 국가 위턱힘이 조석에 잇기로 구원함을 청하얏스니 ㅎ번 장졸을 벌니면 도적을 물니치고 종사를 ㉕안보ㅎ깃나이다.’⁴⁰⁾

이러한 양상은 작중 나타난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 및 위상이 대등함을 넘어 역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신유복전>의 작자는 조선과 명나라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역전시켜 놓는 방식으로 쇠퇴한 존명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 들어간 유복은 명나라를 침범한 이민족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마침내 승전하며, 이에 명나라의 제장군졸들은 “천세 천세

국이 약소국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입진왜란 때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이 조선에 원군 파병을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였다. 더불어 필자가 무문한 탓에 본고를 완성한 이후 알게 되었으나, 명나라를 ‘인국’이라 칭하고 ‘순망치한’이 언급된 점 등을 통해 권순공 역시 본 작품에서 약화된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포착한 바 있었다. 그러나 논자는 이러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신유복이 명나라를 도와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군담의 실상을 들어 본 작품이 우리 민족의 항쟁이 아닌 중원을 침략한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세계를 높임으로써 결국 민족 주체의식을 제시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 권순공, 『활자본 고소설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 92~98쪽.

40) <신유복전> 50면.

천천세”⁴¹⁾를 외치며 승전의 모든 영광을 유복에게 돌린다. 더욱이 천자는 유복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충렬비를 팽장하게 세우고 식사당을 건축하여 사시향축을 풍비하게”⁴²⁾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이여송(李如松, 1549~1598)을 위해 생사당을 건립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⁴³⁾ 이러한 양상은 작중 신유복이 임진왜란 당시의 이여송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⁴⁴⁾ 다시 말해, 본 작품에서 조선과 신유복은 중화세계의 실질적인 수호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인형극인 <국성야합전>에 나타난 ‘일본형화이의식’과도 비견할 수 있는 조선 중심의 ‘화이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매우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⁵⁾

41) <신유복전> 69면, “도탄에 드러든 빅성을 건지시고 위티흐얏든 중원 종사를 안전케 하야 주셨다 하며 제장 군졸이 일시에 빅빅사레하며 원슈를 향하여 천세천세천세천세라 축사하더라.”

42) <신유복전> 70면.

43)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4일 정축 2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석 상서(石尙書)의 생사(生祠)에 관한 일은 일찍이 이미 정하였다. 다른 사람은 비록 할 수 없더라도 석 상서와 이 제독[이여송]은 함께 제사지내야 하니 중국 사신이 나오기 전에 거행케 해서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라.”

44) 더불어 신유복은 자신이 구원병 대도독으로 명나라에 가는 것에 반대한 국왕에게 “세 나라를 쳐파하고 조선국 위엄을 세계에 떨칠지니 아무 넘너 마옵소서. <신유복전> 51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복의 말을 통해서도 작중 조선이 중화 질서의 수호자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5) <국성야합전>은 일본문학사에서 역사물을 소재로 한 인형극인 조루리 작품 중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으로 명나라 유신인 정지룡과 일본인 처 사이에서 태어난 명말 부흥운동의 지도자이자 장군이었던 정성공(鄭成功, 1624~1662)이 야만족인 달단국의 침입으로부터 중국을 구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허구적 결말을 맺고 있다. 본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민희, 『<임경업전>과 <국성야합전> 비교 연구-갈등양상 및 주제실현방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8, 2002, 223~264쪽. 그러나 이러한 본 작품의 서사는 정성공이 청나라로부터 명나라를 구원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는 역사적 기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선과 명나라 및 청나라에 대한 일본의 우월의식이 표출된 것

2) 이민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본 작품에서 유복의 적대자로 설정된 것은 명나라를 침범한 서번·가달·몽골 연합군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본 작품에서 명나라를 망국의 위기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유복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이민족 장수들에게서 부정적인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민족 연합군의 선봉인 가달의 장수 통골은 다음과 같이 명진 장수들을 무수히 섬멸하며 명나라가 조선에 구원병을 요청하게 만든 당세명장으로 묘사된다.

통골이 양장을 버혀 들고 급히 원극을 싸라 명진을 사살하니 명진 장졸의 머리 추풍락엽갓흔지라. 원극이 칠십만 대병을 통골의 손에 다 죽이고 게우 목숨만 보전하야 필마단기로 기주성에 이르러 자사를 보고 지닌 사실을 이르고 장수를 발하야 성을 굳게 직히고 직시 픽흔 사실을 주달하디 황제 대경흐스 조정을 모으시고 도적 파홀 의논을 헝실시...46)

또한 이후 원병장으로 중국에 들어온 유복 역시 통골을 맞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은 “쌍룡이 여의주를 다

이라 할 수 있는데, 허태용은 이러한 일본의 자존의식이 명·정 교체 후 중국을 ‘중화’라 부르는 것에 반대하여 스스로를 ‘중화’로 바라보는 전환된 시각이 표출될 수 있었던 일본의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이를 ‘일본형화이의식’이라 표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19~21쪽. 그런데 <신유복전>은 중화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일반적 고소설 작품들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국성야합전>과 같이 명나라에 대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을 중화세계의 실질적인 수호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신유복전>의 작자가 ‘일본형화이의식’에 견줄만한 자국 중심의 화이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작자의 자존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6) <신유복전> 49면.

토와 희롱”하고 “두 범이 밥을 다토와 태슨을 움작이느” 것에 비유되며 “자용을 분별할 수 없다”고 서술되기도 한다.⁴⁷⁾ 게다가 결국 유복은 힘이 나 지략이 아닌 일향대사의 도술을 빌려 통골을 처치한다. 더욱이 서술자는 직접적으로 통골을 “영웅”⁴⁸⁾이라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본 작품의 작자가 이민족을 마냥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통골 사후 그와 함께 전장을 누비던 서번장 위골대와 몽골의 대장 설만춘마저 유복에게 차례로 목숨을 잃자 연합국의 왕들은 통골의 아들인 통각을 명초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부친의 전사 소식을 들은 통각과 그 누이 벽옥의 모습을 인용한 것이다.

잇섯 통각이 제 아버를 전장에 보니고 주야로 승첩함을 기다리더니 문득 사즈 부음을 가지와 전하고 가들의 글월을 올리거늘 통각이 대경만국하야 즉시 신위를 비설하고 아버의 원수를 잡고져 헛미 …<중략>… 벽옥이 쏘흔 작반함을 청하야 왈, “부모의 원슈갑기는 남녀 간의 분별이 잇스오리잇가? 헛가지로 나아가 부친 원슈를 잡고 적장의 간을 너여 부친의 고향을 위로함이 올스오니 모친은 말류치 마옵소서.” 헛거늘 그 어미 괴특히 녀여 왈, “네 충성과 효성이 지극하니 엇지 성공치 못하리요.”⁴⁹⁾

47) <신유복전> 60면, “통골이 고향하고 달녀들거날 원수 철퇴를 들어 통골의 가삼을 치니 통골이 몸을 날니여 피하고 다시 싸호니 양장의 직조는 서로 상당흔 격수라 검광은 일월을 희롱하고 말굽은 분〃하야 능히 자용을 분변치 못홀너라. 진시로부터 술시선지 싸호니 그 우렬을 가히 아지 못홀너라. 양친 장졸을 서로 바라보민 뇌정벽력자흔 가운데서 쌍룡이 여의슈를 다토와 희롱하는 것 같고 단순에 두 범은 밥을 다토와 태슨을 움작이느 듯 하더라.”

48) <신유복전> 61면, “통골이 비록 영웅인들 엇지 버셔나리요.”

49) <신유복전> 63면.

앞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통각은 부친의 원수를 갚고자 이내 출정을 결심하며 벽옥 역시 부모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 말하며 통각을 따른다. 더불어 벽옥은 모친의 입을 통해 “지극한 충성과 효성”을 지닌 인물로 칭송되기도 하는데, 이는 작중 이민족 장수인 통골·벽옥 남매가 충효를 겸전한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사람의 인물형상은 <옥수기>의 ‘호국 공주’와도 유사한 것으로 인지상정은 화이(華夷)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작자인식을 엿보게 한다.⁵⁰⁾ 즉, 본 작품에는 이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에서 통각과 벽옥 남매는 결국 신유복에게 목숨을 잃는다. 이러한 양상은 이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작자가 여전히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작품은 역전된 조·명 관계를 통해 쇠퇴한 존명의를 표출하는 가운데 조선을 중화세계의 실질적 수호자로 설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민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여전히 잔존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중국인식은 <박씨전>이나 <임경업전>은 물론 <소대성전>이나 <소현성록>과 같이 비교적 병자호란에서 멀지않은 시기에 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설 작품들에 나타나는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⁵¹⁾ 더불어 이러한 작자의

50) 탁원정은 <옥수기>에 호국 공주의 형상을 통해 오랑캐도 인지상정은 같다거나, 재능은 화이를 불문한다는 작가인식이 표출된 것으로 보았다. 탁원정, 『<옥수기>에 형상화된 이국(異國), 중국(中國)], 『한국고전연구』 17, 2008, 168~171쪽 참고.

51) <박씨전>에는 호국의 장수들을 약한 여자도 당치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비하하는 가운데 호왕(胡王)조차도 ‘금수와 같은 왕놈’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임경업전> 역시 호국의 장수들을 ‘무도한 오랑캐’라 부르며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가운데 불의

식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시대정신은 물론 애국계몽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설 작품들에 나타난 그것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⁵²⁾ 이에 본고에서는 본 작품에 내재된 작자의 중국인식을 중심으로 본 작품의 창작시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본 작품에 나타난 중국인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존명 의식의 쇠퇴가 엿보인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민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자의 세계인식이 존화양이의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본 작품이 여전히 중국 중심의 세계인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이미 ‘대청복수론’이나 ‘대명의리론’이 그 시의성을 상실해버린 19세기 중반 이

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소대성전>에서도 호국왕은 불의한 존재로 그려지며 <소헌성록>의 경우, 윤남의 왕비를 “해외의 천녀(賤女)”라 표현하는 등 이민족에 대한 멸시어린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관련 논의는 주수민과 정길수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수민,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식 연구-원·청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43쪽; 정길수, 『한국 고전문학에서의 주체와 타자: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中華主義’』, 『국문학연구』 15, 2007, 137~138쪽. 이러한 양상은 본 작품이 병자호란에서 동떨어진 시점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52) 가령, 애국계몽기를 갑오민중항쟁이 일어난 1894년부터 한일합방이 된 1910까지로 본 장효현은 이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씨복선록>, <봉래신선록>, <정목단전>, <춘몽>과 같은 작품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수용되었으며, 본 작품들은 ① 민족사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거나, ②시대적 문제를 소극적으로나마 피력하고 있거나, ③보수적 틀에 머물거나, ④반민족 지향의 친일의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허순우는 1906년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고전소설집 『오옥기담』의 특징과 의의를 논하는 자리에서 본 작품집의 의미를 ‘기담’ 형식과 계몽적 내용을 결합한데서 찾기도 했다. 장효현, 『애국계몽기 창작 고전소설의 한 양상: 신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1, 1990, 153쪽; 허순우, 『애국계몽기 국문단편 고전소설집 <오옥기담(五玉奇談)>의 특징과 의의』, 『한국민족문화』 58, 2016, 185~194쪽.

후의 어느 한 시점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주지하듯, ‘중화(中華)’ 관념은 조선의 대외관계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 규제해 가는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명·청이 교체된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도 여전히 조선사회의 지배적 관념으로 자리했다.⁵³⁾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존주휘편》 간행(1800)을 통해 알 수 있듯, 18세기 말~19세기 초, 오랜 시간 조선의 시대정신으로 자리했던 북벌론이나 존주론은 이미 그 시의성을 상실해 버렸다.⁵⁴⁾ 더욱이 순조(純祖, 재위 1800~1834) 전반까지도 강하게 자리했던 대명의리의식은 헌종 대(憲宗, 재위 1834~1849)에 조선 정부가 청에 대한 ‘이념적 사대’를 취하게 되면서부터는 유명무실화되었다.⁵⁵⁾ 또한 이 시기 대청관계의 변화와 대청교류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청인(淸人)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⁵⁶⁾ 본 작품에 나타난 쇠퇴한 존명의식과 이민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53) 유미림, 『조선후기의 정치사상』, 지식산업사, 2002, 281~374쪽.

54) 18세기 중반 북학운동이 시작되면서 조선후기 사회의 시대정신이었던 북벌론과 존주론은 시대적 당위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200여 년 동안 조선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심점이 되었던 이 논리를 하루아침에 폐기처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정조는 북학론자들의 진보적 의식을 수렴하는 한편, 열성조를 통해 현창되어 온 존주론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자 정조 24년인 《존주휘편》을 편찬하였다.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3, 76~80쪽.

55) 순조 때에는 청에 대한 전략적 사대를 취하는 가운데 청나라 연호의 사용을 주장하거나 명나라 의종의 정치를 비판한 관료들을 불경죄로 처벌하는 등 여전히 존명의식이 강하게 자리했다. 그러나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 시기 정권을 장악한 몇몇 벌열가문들은 자신들의 집권명분을 강화하고자 극진한 대청사대외교를 펼쳤으며, ‘홍경래의 난(1811~1812)’ 등으로 청나라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했던 순조 중반에서 헌종 대에 접어들면 조선 정부는 ‘전략적 사대’를 넘어 청에 대한 ‘이념적 사대’를 취하게 된다. 박현모, 『세도정치기(1800~1863) 조선의 대외정책 연구』, 『국제정치논총』 44-4, 2004, 10~13쪽.

56) 탁원정 역시 앞의 논문을 통해 1835~1840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옥수

은 이러한 19세기 중후반경의 사회적 분위기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더 불어 서세동점하는 상황에서 1840년에 발발한 아편전쟁은 청나라의 쇠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운데 서구 세력에 대한 조선인들의 경계심을 드높이기도 했는데,⁵⁷⁾ 본 작품에서 나타난 중화의식에 기반을 둔 작자의 자존의식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조선을 중화세계의 유일한 수호자로 설정하고자 했던 작자인식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현전하는 구활자본 외에도 <신유복전>의 또 다른 이본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본 작품의 창작시기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작품의 후반부에 나타난 중국인식을 중심으로 본 작품이 19세기 중후반경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개진하였다. 본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신유복전>을 1917년에 창작된 것으로 본 데에는 본 작품이 구활자본으로만 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1917년에 발행된 광문서시본은 특정 저본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광문서시본보다 후대에 발행된 활자본 이본인 <천정연분>은 광문서

기>에 표출된 ‘화이무분’의 사고가 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호족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던 19세기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탁원정, 앞의 논문, 171쪽.

57) 19세기 조선의 대청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노대환, 『19세기 전반 지식인의 대청 위기인식과 북학론』, 『한국학보』 20-3, 1994, 35~36쪽.

시본이 아닌 또 다른 <신유복전> 이본을 바탕으로 하여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필사본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본고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광문서시본의 발행연도가 <신유복전>의 창작 하한시기를 규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창작시기와 동일시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더불어 본고는 후반부 서사에 나타난 작자의 중국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작품은 조선과 명나라의 위상을 임진왜란 당시와 의도적으로 역전시켜 놓는 방식으로 쇠퇴한 존명인식을 표출하는 가운데 조선을 중화세계의 실질적 수호자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민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여전히 적개심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중국인식이 병자호란 이후 17~18세기에 걸쳐 조선의 시대정신으로 자리했던 북벌의식은 물론 개화기의 대외인식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본 작품이 비교적 다양한 중국인식이 공존했던 19세기 중후반경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신유복전>이 19세기 중후반경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본 작품은 여전히 중화인식의 자장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으나, 당대 공존했던 ‘화이’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을 적나라하게 담아내는 가운데 당대적 사고 안에서 작자의 자존의식을 충실하게 구현해낸 작품으로서 우리 소설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경전> 광문서시(1917)
<신유복전> 광문서시(1917)
<유문성전> 광문서시(1918)
<유문성전 권지단> 국립중앙도서관
<장익성전> 광문서시(1922)
<천정연분> 경성서적조합(1927)
《朝鮮王朝實錄》
《明史》

- 곽정식, 「<申遺服傳>의 설화 수용 양상과 영웅소설사적 의의」, 『한국문학논총』 61, 2012, 5~30쪽.
- 권순궁, 「신유복전과 민족주체의식의 한계」, 『성대문학』 27, 1990, 257~265쪽.
-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서, 2000, 1~340쪽.
-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1~608쪽.
- 김성철, 「육당문고 소장 조선광문회본 고소설에서 드러나는 초창기 검열 양상과 검열 우회의 징후」, 『고전과 해석』 16, 2014, 7~28쪽.
- 김성철, 「활자본 소설 『<改過遷善>南無阿彌陀佛』에 드러난 검열 흔적과 의미」, 『한국학연구』 59, 2016, 39~59쪽.
- 노대환, 「19세기 전반 지식인의 대청 위기인식과 북학론」, 『한국학보』 20-3, 1994, 23~51쪽.
- 박명재, 「신유복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68쪽.
- 박현모, 「세도정치기(1800~1863) 조선의 대외정책 연구」, 『국제정치논총』 44-4, 2004, 7~26쪽.
- 신태수, 「신유복전의 作品世界와 理想主義的 性格」, 『한민족어문학』 26, 1994, 165~190쪽.
- 엄태웅, 「<신유복전> 이본 <천정연분>의 변이 양상과 의미1」, 『Journal of Korean Culture』 24, 2013, 61~90쪽.
- 엄태웅, 「<신유복전> 異本 <천정연분>의 변이 양상과 의미2」, 『우리문학연구』 41, 2014, 105~143쪽.

- 여중동, 「자료 <신유복전>」, 『배달말 교육』 17-1, 1997, 145~197쪽.
- 유미림, 『조선후기의 정치사상』, 지식산업사, 2002, 1~416쪽.
- 유보전, 「壬辰倭亂期 朝·明 關係史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162쪽.
- 윤보윤, 「영웅소설의 고난 구조와 후대적 변이 양상」, 『어문연구』 89, 2016, 97~129쪽.
- 이혜숙, 「신유복전의 구조와 의미」, 『논문집』 5, 1987, 261~278쪽.
- 이민희, 「<임경업전>과 <국성야합전> 비교 연구-갈등양상 및 주제실현방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8, 2002, 223~264쪽.
- 임형섭, 「<신유복전>과 <이태경전>의 비교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50쪽.
- 장효현, 「애국계몽기 창작 고전소설의 한 양상: 신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1, 1990, 137~153쪽.
- 정길수, 「한국 고전문학에서의 주체와 타자: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中華主義」」, 『국문학연구』 15, 2007, 131~151쪽.
-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3, 1~230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1~626쪽.
- 조선문학창작사 고전문학실, 『고전소설 해제2』, 문예출판사, 1991, 1~479쪽.
- 주수민, 「<현수문전> 이본 연구」, 『정신문화연구』 134, 2014, 227~256쪽.
- 주수민,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식 연구-원·청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181쪽.
- 탁원정, 「<옥수기>에 형상화된 이국(異國), 중국(中國)」, 『한국고전연구』 17, 2008, 151~188쪽.
- 허순우, 「애국계몽기 국문단편 고전소설집 《오옥기담(五玉奇談)》의 특징과 의의」, 『한국민족문화』 58, 2016, 171~199쪽.
-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1~279쪽.

ABSTRACT

A Rediscussion of Creation Period of *Shinyubokjeon*

Joo, Soo-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iscuss the creation period of *Shinyubokjeon*. Only its old printed book remains today. so it has been estimated that it was created in 1917 when its earliest publication Gwangmunseosi version came out. There is another estimation for its creation period that it was written after the Manchu War(1636) when there was a strong spirit of conquering the foreign enemie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however, raise a big possibility that there was its manuscript even before its old printed book,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no confirming the creation period of the novel based on the time of its old printed book. In addition, the novel presents a weakened consciousness of dignity toward Ming an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foreign intruder. So this study estimated that *Shinyubokjeon* was created in the middle or late 19th century by considering the perceptions of China.

Key Words *Shinyubokjeon*, creation period, old printed book, perception of China, Mid-19th Century Creation

논문투고일 : 2017.06.30
심사완료일 : 2017.08.08
게재확정일 : 2017.08.15